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혼을 뒤엎는 일로까지 발전하는 것이다.

외형에만 치중하는 현대의 교회들은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 많은 것을 한 것처럼 느껴지도록 복잡한 세리머니를 구성하지만 정작 중요한 알맹이는 다 빠져 있는 사람 위주의 쇼에 가까운 예배를 하고 있다. 이로써 마귀의 작전은 성공하여,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은 안락사하고 있고, 교회 밖의 불신자들은 많은 종교 중 하나에 불과한(?) 기독교를 점점 싫어하게 되고 있으니 말이다.



어둠의 도시를 뺨도는 사람들

<다크시티>라는 영화에서는 세상 모든 이들이 순식간에 수면에 빠지고 건물들은 사라진 후 새로 도시가 건설된다. 다시 움직이는 세상, 지구인들은 여전히 분주하게 살아가는데 몇몇은 누명을 쓰고 쫓겨 다니게 된다. 사람들이 늘 익숙한 자기들의 도시에서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고 믿도록 어둠의 무리들이 무의식을 조종한다는 내용이다(기독교적 영화는 아닌).

사람들은 늘 그 마을만을 뺨뺨 돌고, 기차의 종착역이 어딘지 어렵듯이 알기는 하지만 기억이 지워져서 아무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인공이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계속 추적하다 보니 종착역으로 가는 길은 더 이상 없었고, 표지판뿐이며 벽으로 가로막혀 있었다. 그는 계속 의심을 하다가 벽을 뜯어보게 되는데, 벽 밖으로 검은 우주 공간이 나왔다. 음모를 꾸미는 외부의 존재들이 우주에 지구의 도시와 똑같은 장소를 만들어놓고 사람들을 가둔 것을 알게 된 것이었다.

‘종교’는 마치 이런 도시와 같다. 참다운 것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한 공간을 만들어 마음껏 놀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안에서 적당히 애쓰고, 적당히 거룩하게 살고, 적당히 고민하며 마을의 수장과 의논해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간다. 그것이 최선이라고 여기며, 더 높이 신이 있는 그저 자기가 직접 만날 대상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그 어둠과 모호한 도시 ‘다크시티’에 갇히기 전에 과감히 나가 진실을 알고 자유를 얻으며 가상으로 제공된 공간이 아닌 진짜 세상을 만나려면 끝없이 마귀의 계락을 의심하고 정신을 차려 참 생명을 탐구해야 한다.

종교 프로그램의 악영향

세상에는 종교의 폭력과 무가치함에 대해 논하는 책들도 쏟아지고 있다. 그들 역시 마귀가 벌인 특정한 판에서 게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복음과 신앙의 언저리에서만 머물던 사람들은 이런 책에 설득을 당하기도 한다. 진보적인 기독교인들은 참 종교와 우상의 종교를 섞으며 화합을 시도하고, 보수적이라는 기독교 지도자들은 부끄러움을 모르고 권력을 탐하며 경솔한 언행을 일삼아 세인들의 손가락질을 받는다.

이처럼 뒤틀린 모습에 ‘종교에 대한 거부감’은 오늘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을 통해 마귀는 더 많은 영혼을 자신의 종착지인 지옥으로 이끄는 것이다. 사탄 마귀를 이길 뱀의 지혜 같은 지혜(마10:16)가 종교계나 종교인들에게서 나올 리가 없다. 종교는 바로 마귀의 편이기 때문이다.

오늘도 교인들은 ‘아멘’과 ‘물음표’ 사이에서 고개를 갸우뚱하며 그 도시의 경계선까지 서성거리며 답을 찾아보기도 하지만, 이내 진실의 벽 앞에서 돌이켜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간다. 그들은 이렇게 중얼거린다.

“내가 너무 교만했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던데... 내가 뭘 알겠어,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봐야지. 이 도시 밖에는 이단과 사이비가 들끓는단데...”

제대로 프로그래밍된 종교인들은 벽이 열려도 차라리 자신의 눈을 의심할지 언정 그곳을 떠나지 않는다. 마치 사냥꾼에게 잡힌 후 발이 묶여 날지 못하던 새가 처음에는 탈출을 시도하지만 나중에는 끈을 풀어줘도 더 이상 날지 않고 사냥꾼의 먹이와 새장에서 안주하는 것과 같다고 할 것이다.

형식이 필요 없다거나 누가 다 틀렸다는 것이 아니다. 단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최고의 가치인 ‘복음을 통한 영혼의 자유’를 스스로 내팽개치고 어둠의 도시로 들어가 마귀의 조작품에 종노릇하고 있는 현실을 돌아보자는 것이다.

주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빛의 자녀로 살면서 바른 눈과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자유를 누리며 종의 신분이 아닌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 8:32)

당신은 종교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교인’입니까?
종교의 틀만 보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무신론자’입니까?
종교를 넘어 참된 복음으로 자유를 얻으십시오.

 바른 말씀을 전하는 성경 지킴이 그리스도예수안에 www.KeepBible.com
032-872-1184

종교 안에 거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가?



그리스도인이며, 종교의 도시를 떠나라!!

복음의 최고 가치인 ‘영혼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한 채
마귀의 조작품에 종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자유를 누리며 종이 아닌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십시오.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임

- 가장 많이 모이는 예배에는 장로가 기도하고, 저녁예배부터만 집사가 기도한다.
- 설교나 성경공부 인도는 신학을 전공한 사람 이상만 한다.
- 목사가 잘못해도 그의 권위에 반발하는 것은 금기이며 불순종이다.
- 외부에서 성경을 공부할 때는 교회에 묻고, 구제도 교회를 통해서만 한다.
- 출석 몇 년 이상, 십일조 몇 년 이상 하면 안수집사 후보 자격을 준다.
- 직분을 받을 때는 감사헌금으로 일정액의 돈을 낸다(형편이 어려우면 깎아 줌).
- '주여 삼창'과 간절한 통성기도 중 거수로 건축헌금을 작성한다.
- 부흥사를 불러 분위기를 일신하고, 집회 감사헌금으로 부족한 재정을 메운다.
- 기타 다양한 마케팅 이벤트와 행사와 각종 용도로 기획된 헌금 등등.

이것은 한국 교인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았을 '관행'이다. 다른 말로 한다면 '종교 게임', '종교 놀이'라 할 만한 일들이다. 평신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감히 비판하거나 문제 삼는다는 것은 커다란 반역으로 비쳐지기도 한다. 이런 일들을 주도하는 교역자들은 물론 이에 놀려 지내는 피해자들이 더 나서서 스스로 그 굴레로 들어가는 양상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종교 지도자들의 거역할 수 없는 권위에 '자유를 주는 진리'를 모르는 상황이 겹쳐 두려움으로 이루어지는데, 목회자의 말이라면 죽는 시늉도 하는 신도들 때문에 악순환은 끊어질 수가 없다.

많은 성도들은 문제점을 알면서도 조용히 있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거나 '내가 뭘 알겠나' 싶어 감히 나서지 못한다. 일부러 짝필 필요 없이 좋은 게 좋은 것이니 서로 대우해 주고 대접받고 하는 것이 살아가는 지혜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적당히 생색나는 헌금과 봉사를 통해 한 자리 얻으려는 모습이 뻔히 보이는 이들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건전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극히 소수다. 물론 개혁과 변화를 외치는 것만이 좋은 방법은 아니므로 속으로 안 타깝더라도 분란을 일으키기보다는 조용히 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문제를 삼는다고 무슨 혁신이 일어나는 것도 아닌 것이 현실이다.

성도들 중에도 매사에 '하나님'이나 '은혜'를 남발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 줄 알고 덕담을 입에 달고 살면서도 정작 은혜롭지 못한 삶을 사는 경우도 있고, 자기 문제에 대해 '기도 부탁'을 자주 하거나 다른 이에게 자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면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에는 소홀한 경우도 많다. 그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며 남도 착각하게 만든다. 그들은 교회에서도 헌금을 내고 직분을 받고 출석 회수를 늘림으로써 자기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이것이 종교 게임의 가장 큰 폐단이라 할 수 있다.

종교와 형식의 창시자

정말 심각한 문제는 '종교'의 창시자가 누구이며 이것이 초래하는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반 기독교인들의 불만을 보면, 하나님 자체보다도 종교적 형식이나 방법, 교회와 교인들의 부족한 행동과 언행에 대한 것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되 교회가 싫어서 출석은 안 한다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런 현상은 종교적 조직이나 불합리한 관행 또는 형식을 빌어 행해지는 한심한 일들 때문이다. 물론 무작정 반감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이고, 교회들이 아무리 잘해도 또 다른 평계를 대며 하나님을 멀리할 사람들일 수 있지만, 충분히 호감을 가지고 있거나 영적으로 갈급하여 무엇이든 잡으려는 사람들도 종교의 벽에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

인간의 영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은 마귀다. 그러므로 화려한 형식의 종교를 창시한 자는 마귀라 할 수 있다.

인간의 마음에 영적인 탐구심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지만 그것은 형식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물질세계를 살아가는 존재인 인간에게는 마음만이 아닌, 믿음을 드러낼 최소한의 형식이 필요하다. 침례, 만찬, 입으로 시인하는 것, 모이는 것, 말씀을 듣는 것, 물질을 함께 나누어 꾸러가는 것 등이 그것인데, 마귀는 이에 착안하여 그것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다른 신들을 여럿 두어 그 형식을 비슷하게 함으로써, 모든 종교가 대등소이하게 보이도록 했다.

구약에는 더 많은 율법적 지침과 형식이 존재하는데, 그 의미와 그림자로서의

역할보다 겉모양 자체에 주목한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행함으로써 무언가 하나님 곁에 더 다가갔다고 믿는 율법주의적 오류에 빠지게 되었다.

이것이 가장 능한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율법박사, 그리고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었다. 이들은 사람들의 불완전함과 미신적 종교심을 이용해 그들 위에 군림해 왔다. 형식이 필요할 수밖에 없음을 이용한 마귀의 작전이 참 신앙의 울타리 밖에서 종교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불안은 곧 혼란이며 자유의 부재는 곧 진리의 부재이다.

진리는 단순하고 상식적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에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하였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또 너희를 향하여는 더욱더 그리하였노니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또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라.** (고후 1:12)

바울은 자신들, 즉 리더인 자기와 디모데가 단순함과 진실함으로 생활했다고 말하고 있다.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더욱더 그렇게 했다는 것이다. 당연히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시므로(고전 14:33) 외형은 최소화하여 형식으로 인해 진리가 가려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사도행전에서 새로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 어떤 율법의 규례들을 적용시켜야 하는가의 문제에 있어서 사도들이 간소한 명령들을 내렸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는 야고보의 판결 이후 유다와 실라 등은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의 이방인 형제들에게 이렇게 편지한다.

우리에게서 나간 어떤 자들이 말들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너희 혼을 뒤엎으며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였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으나 우리는 그들에게 그런 명령을 준 적이 없으므로 (행 15:24)

이처럼 받은 적이 없는 명령들을 가지고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심지어 '혼을 뒤엎는' 일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 진리는 단순한 것이고, 단순함 안에서 복음의 가장 큰 가치인 자유가 숨 쉴 수 있다. 그러므로 있지도 않은 것들로 성도들을 엮어 매는 자들은 참된 목사가 아니라 목사인 체하는 '무지한 거짓 지도자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지만 사람은 늘 외모를 본다. 마귀는 또 이것에 착안했을 것이다. 모든 것의 외형과 겉모양을 중시하는 사람의 속성을 보고 교회의 형태와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복잡하고 근엄해 보이게 만들었다. 그래서 오래된 우상숭배의 틀을 개조해 마귀의 모조품인 로마 카톨릭 체제를 만들었다.

그 체제에서 개혁했다고는 하나 여전히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는 개신교에서는 성직자 체제와 유아세례, 교단 형성, 오순절 은사주의, 신비주의 영성, 예배당 성전화 등 그 형식들을 아직도 답습하고 있다. 이것이 단순함에서 떠나